

혼백에 대한 중의학 연구 동향

배진수, 김효섭, 이승환*, 임정화[†], 성우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교실[†]

A Review of HonBeck (魂魄)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in-soo Bae, Hyo-seop Kim, Seung-Hwan Lee*, Jung-Hwa Lim[†], Woo-Yong Seong[†]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al Hospital,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1, 2017

Revised: December 15, 2017

Accepted: December 18, 2017

Correspondence to

Woo-Yong Seo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0, Kumoh-ro,
Mulkeum-eup, Yangsan, Korea.
Tel: +82-55-360-5555
Fax: +82-55-360-5890
E-mail: sayeo@hanmail.net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o review studies on HonBeck (魂魄)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clearly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theory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ethods: We reviewed studies published in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up to 2016. Keyword was "魂魄". We found 103 articles about HonBeck (魂魄). Among them, articles describing the spirit of souls and ghost not related to TCM were excluded. We only included papers related to TCM, including those that performed comparative study on Honbeck (魂魄) between the Canon of Internal and recent studies published. Specialty publications on Honbeck (魂魄) within oriental medicine were also included.

Results: Many advanced opinions on concepts of Honbeck(魂魄) between Ohsin (五神) and Ohji (五志) were obtained.

Conclusions: Ohsin (五神) is useful to explain human's whole psychologic activity and process of human memory. Hon (魂) can be described as personality in mental activity. Beck (魄) can be described as sensory and perception in mind.

Key Words: Honbeck (魂魄), Hon (魂), Beck (魄), Ohsin (五神), Ohji (五志).

I. 서론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을 행동과 심적 과정의 과학 (the science of behavior and mental processes)이라고 정의하며, 행동은 유기체가 행하는 것, 즉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행위이며, 감각, 지각, 꿈, 사고, 신념, 감정 등의 심적 과정은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내적인 주관적 경험으로 보고 있다¹⁾.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 매우 정교하게 규정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²⁾.

그러나 전통적 한의학의 특성은 사변적이며, 철학적이거나 이미 짜여있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구조 아래서 모든 현상을 판단하므로, 한의학의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선 이러한 구조 아래 심리학적 현상을 해석하여 왔다^{3,4)}. 한의학의 심리학적 이론은 전통한의학의 방대한 내용 속에 감추어진 채로 한의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뛰어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개념정리가 미흡하며, 현상 및 기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한의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20세기 초부터 있어왔으며, 현재는 한의심리개념, 형신(形神)관계, 인격(人格), 심리적 병인, 진단, 치료, 양생(養生), 의환관계(醫患關係)에 대해 문헌을 발굴, 정리하여 이론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 실천하고 있다⁵⁾.

한의심리학은 한의학과 심리학의 교차변연학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한의학과 심리학이 서로 스며들고 서로 교차하여 이루어진 학문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학에서 사용해진 전통적인 용어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면이 있어 현대 심리학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의심리학적 이론 연구에 현대 심리학을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진들은 한의학에서 심리학분야에 쓰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현대 심리학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현상으로 관찰되는 기본적인 정신활동인 오신(五神) 중 일반적으로 정신이나 마음을 일컫는 말인 혼백(魂魄)을 택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혼백(魂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국내에서는 윤⁷⁾의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존의 중의학 논문 중에서도 혼백에 대한 리뷰 연구가 없어 최

근 중국에서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봄으로써 혼백 연구에 일조가 되고자 이 논문을 기획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최근의 혼백에 대한 중국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은 배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논문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논문검색

중국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중국지식기초시설공정(www.cnki.net)에서 문헌분류목록으로 의약위생과지(醫藥衛生科技) 중 중의학(中醫學)을 선택하고 주제를 혼백(魂魄)으로 하여 등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3. 연구 방법

검색된 논문을 Database 별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양생, 보건, 가정 의학 등 상식을 다룬 저널에서 수록된 논문을 제외하고 아울러 이를 다시 주제별로 구분하여 이를 근거로 최근 중국의 혼백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아울러 혼백학설의 기원과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의학 원전인 내경에 나타난 혼백의 용례 및 그에 유관한 제가의 학설을 참고하였다.

III. 결과

1. 검색된 논문의 분류

모두 103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우선 기간저널에 실린 양생, 보건 가정 의학 등 상식에 관한 19편을 제외하고 분류하였다.

1) Database 별 분류

학위 논문이 모두 26편으로 박사학위 14편, 석사학위 12편이었으며 나머지 58편은 모두 기간(期刊)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다.

2) 주제에 따른 분류

혼백을 정의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모두

28편이었으며, 잠과 꿈과 관련한 주제는 모두 23편으로 불면에 대한 연구가 11편, 꿈에 관한 연구가 7편, 수면에 관한 연구가 4편 그리고 잠과 꿈을 같이 연구한 경우가 한 편이었다.

또 백(魄)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세 편이 있었다.

그 외 단순히 다른 연구를 위하여 혼백이론을 언급한 경우가 29편인데 그 중 병증연구에 관한 논문이 14편, 약리연구가 6편, 임상관련 연구가 5편, 다른 학설을 연구하면서 언급된 경우가 3편, 변증(辨證) 관련으로 언급된 경우가 1편이었다.

그 밖에 혼백의 영어표현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2. 중의학 혼백연구의 최근 동향

19편을 제외한 84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 주제가 혼백이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거나 논문의 창의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 주제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84편의 논문을 살펴 본 결과, 혼백 연구의 방향성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혼백의 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혼과 백을 고급, 저급 정신활동으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다. 혼백과 지의(志意)를 정신활동의 저급, 고급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의(志意)가 혼백을 수섭(收攝)한다고 보기도 한다. 인격이 한의 오지 이론 중 혼백의 핵심부분이라고 추측한다. 혼백을 Freud나 Jung 등의 이론과 결합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

IV. 고찰

1. 내경 이전의 혼백(魂魄) 관념

혼백의 개념은 오랜 역사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어두웠던 시대의 사람들이 정신이 육체의 신물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 속에 깃들어 육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을 상상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8,9)}. 혼백이 형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 정신활동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 형체가 없어져도 혼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형질은 없어져도 혼백은 남는데 이것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보았다’⁹⁾.

역사연구에서 ‘인류는 늦어도 석기시대 중기 혹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의식하고 사고하게 되었고, 아울러 잠과 꿈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비현실

적인 정신세계 곧 영혼의 세계를 상상해 내고 죽음이 잠과 같다고 생각하여 잠자며 꿈꿀 때 영혼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현실 생활 중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죽는 것은 오래 잠자는 것으로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혀졌다⁹⁾.

이런 영혼 관념은 원시인의 생각 속에 영혼 귀신으로 가득한 세계를 점점 형성시켜 개개인만이 아닌 일반 인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은상(殷商)시대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며 갑골문에 이미 혼백이라는 글자가 있어 귀신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다가 춘추전국에서 진한(秦漢)시기에 이르러 사회가 더욱 발전하여 진한시기에 이르러서는 귀신, 혼백을 구별하여 쓰게 되었는데 여씨춘추(呂氏春秋) 금색(禁塞)의 비신상혼(費神傷魂)을 고유(高誘)가 주를 달면서 ‘혼(魂)은 사람의 음정(陰精)이며, 혼(魂)은 사람의 양정(陽精)이다.’라 한 것으로 볼 때 음양으로 혼백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혼백을 인체 기능 및 생명활동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하여 예기 교특생(禮記 郊特牲)에서는 혼기(魂氣)는 하늘로 올라가고 형혼(形魂)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며, 주례춘관 대종백(周禮春官 大宗伯)의 가공언 소(賈公彥 疏)에서 ‘사람의 호흡으로 들고 나는 기가 혼(魂)이며, 눈과 귀를 밝게 하는 것이 백(魄)이다.’라고 하였다^{8,9)}. 좌전 자산(左傳 子產)에서는 ‘인생시화위혼(人生始化爲魂), 기생백(既生魄), 양왈혼(陽曰魂)’이라 했는데 공영달(孔穎達)은 이를 주소(註疏)하면서 ‘처음 형체가 갖추어 질 때 형체의 영(靈)을 백(魄)이라 하고, 백(魄)이 생긴 뒤에 백(魄) 속에서 스스로 생긴 양기(陽氣)의 신(神)을 혼(魂)이라 한다. 혼(魂)과 백(魄)은 신령(神靈)의 이름으로 형기(形氣)를 따라 존재하므로 형기(形氣)가 다른 만큼 혼백(魂魄)도 다른 것이라고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체(形體)에 붙은 령(靈)이 되고 기(氣)에 붙은 신(神)은 혼(魂)이 된다. 형체에 붙은 령(靈)이라는 것은 처음 났을 때의 이목심식(耳目心識), 수족운동(手足運動), 제호위성(啼呼爲聲)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백(魄)의 령이다. ‘기에 붙은 신이라는 것은 정신성식(精神性識)으로 점점 아는 것이 있어 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8,9)}.

이렇게 은상시기로부터 혼백이라는 명칭이 귀신이라는 의미로 쓰여 왔으며 춘추시기에 이르러서는 혼은 양정으로 보고 기에 붙은 신이라 하였고, 백은 음정으로 형에 붙은

령이라고 보아 혼백을 음양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었다^{8,9)}.

2.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의 혼백(魂魄)

내경이 이루어진 시기는 늦어도 동한(東漢)시기의 상한 잡병론(傷寒雜病論)이 만들어지기 전이며 일러도 유흠(劉歆)의 칠략(七略)이전으로 비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추(靈樞)는 문자가 소문(素問)보다 의미가 얇고 쉬워서 소문 뒤에 만

들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소문에서 영추를 인용한 부분도 있다¹⁰⁾.

어떻든 혼(魂)과 백(魄)은 내경에서 별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혼백(魂魄)이 한 단어로서는 영추에서만 13회 나오고, 혼(魂)만으로는 소문에서 4회, 영추에서 6회, 백(魄)만으로는 소문에서 8회, 영추에서 7회 나타난다(Table 1).

혼백(魂魄)은 한 단어로서는 정신혼백(精神魂魄), 영위혼백(營衛魂魄), 신기혼백(神氣魂魄), 정신혈기혼백(精神血氣

Table 1. Honbeck (魂魄) Mentioned in Huangdineijing

Honbeck (魂魄)	Honbeckbiyang (魂魄飛揚)
Bonsin (本神)	Jeongsinhonbaek (精神魂魄)
Jongsi (終始)	Honbeckbulsan (魂魄不散)
Gyeongsu (經水)	Singihonbeck (神氣魂魄)
Eumsabalmong (淫事發夢)	Honbeckbiyang (魂魄飛揚)
Bonjang (本臟)	Suhonbeck (收魂魄)
	Honbeckbulsan (魂魄不散)
	Jeongsinhyeolgihonbeck (精神血氣魂魄)
Wigi (衛氣)	Jeongsinhonbeck (精神魂魄)
Cheon-nyeon (天年)	Honbeckpilgu (魂魄畢具)
Daehongnon (大惑論)	Yeongwihonbeck (營衛魂魄)
	Honbecksan (魂魄散)
	Jeongsinhonbeck (精神魂魄)
Hon (魂)	Ganja... honjigeoji (肝者... 魂之居也)
Yukjeoljangsang (六節臟象)	Ganjanghon (肝藏魂)
Seonmyeongogi (宣明五氣)	Ingiganheogamcheonjungheo... Honyoueosang (人氣肝虛感天重虛.. 魂遊於上)
Jabeomnon (刺法論)	Heubinsinhon (吸人神魂)
Bonsin (本神)	Hawihon (何謂魂)
	Susinwangraejawijihon (隨神往來者謂之魂)
	Ganbiaedongjungjeuksanghon (肝悲哀動中則傷魂)
	Honsangjeukgwangmangbuljeong (魂傷則狂妄不精)
	Ganjanghyeol hyeolsahon (肝藏血 血舍魂)
	Ganjanghon (肝藏魂)
Guchimnon (九鍼論)	Beckhanmijin (魄汗未盡)
Beck (魄)	Beckhanmijang (魄汗未藏)
Saenggitonchen (生氣通天)	Pyejabeckjicheoji (肺者 魄之處也)
Eumyangbyeollon (陰陽別論)	Beckmunyeowiojangsa (魄門亦爲五臟使)
Yukjeoljangsang (六節臟象)	Gibeckdokgeo (其魄獨居)
Ojangbyeollon (五臟別論)	Pyeongbeck (肺藏魄)
Tangaekyorye (湯液醪醴)	Beckhanbujin (魄汗不盡)
Seonmyeongogi (宣明五氣)	Beckhanbujang (魄汗不藏)
Tongpyeongheosillon (通評虛實論)	Hawibeck (何謂魄)
Jijinyodaelon (至真要大論)	Byeongjeongichuripjawijihon (並精而出入者謂之魄)
Bonsin (本神)	Pyehuirakmugeukjeuksangbeck (肺喜樂無極則傷魄)
	Becksangjeukgwang (魄傷則狂)
	Pyeongggi (肺藏氣)
	Gisahon (氣舍魂)
Cheonnyeon (天年)	Pyegisoebeckni (肺氣衰 魄離)
Guchimnon (九鍼論)	Pyeongbeck (肺藏魄)

魂魄), 혼백비양(魂魄飛揚), 혼백불산(魂魄不散), 혼백필구(魂魄畢具), 수혼백(收魂魄), 혼백산(魂魄散)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정신혼백(精神魂魄), 영위혼백(營衛魂魄), 신기혼백(神氣魂魄), 정신혈기혼백(精神血氣魂魄)으로 쓰인 용례와 혼백비양(魂魄飛揚), 혼백불산(魂魄不散), 혼백필구(魂魄畢具), 수혼백(收魂魄), 혼백산(魂魄散)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경우는 정(精), 신(神), 혈(血), 기(氣), 영(營), 위(衛)가 혼백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精), 혈(血), 영(營)과 신(神), 기(氣), 위(衛)가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지듯이 혼백도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혼백비양(魂魄飛揚), 혼백불산(魂魄不散), 혼백필구(魂魄畢具), 수혼백(收魂魄), 혼백산(魂魄散)은 혼백이 다 갖추어져야 건강한 상태이며 인데 혼백이 일시 비양하거나 흩어짐으로써 몸을 떠날 수도 있으며,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문과 영추에서 혼(魂)과 백(魄)이 따로 분리되어 쓰여진 경우는 대개 오신(五神) 중의 두 부분으로서 쓰여진 경우이다. 혼(魂)은 수신왕래(隨神往來)하여 간(肝)에 존재하며 지나친 비애(悲哀)로 인해 간(肝)이 손상되면 혼(魂)에 이상을 초래하여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백(魄)은 병정이출입(并精而出入)하여 폐(肺)에 존재하며 지나친 희락(喜樂)으로 폐(肺)가 손상되면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신(五神)은 혼백의지신(魂魄意志神)으로서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기본적인 정신활동으로 이를 오장(五臟)에 배속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한의학에서의 정신 현상 관찰법으로, 즉 정신활동이나 정신현상은 오장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¹¹⁾. 그 중 혼(魂)은 충동관능(衝動官能)으로 침정(沈靜)한 정신 상태를 의식적 정신 상태로 발동시키는 정신의 충동 경향성을 의미하고, 신(神)은 신명관능(神明官能)으로 생물의 활동 현상 중 가장 신명(神明)한 정신 발현의 힘인 생명활동의 추진기능으로 보고 있으며, 의(意)는 인격관능(人格官能)으로 충동을 받아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자아적으로 통합하고, 인격적으로 통일 발현함으로써 자기 의식화하는 정신 활동이며, 백(魄)은 검열관능(檢閱官能)으로 생명 존속에 불리하도록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욕망적 충동을 적당히 억제하는 정신활동의 억압 경향성이며, 지(志)는 작강관능(作強官能)으로 의식을 정화하여 이를 저장하는 것으로 무 의식화 된 충동을 의식화 시키는 정신활동의 관념화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¹¹⁾.

이와 다르게 신(神)을 모든 정신활동과 그 과정을 주관하는 존재로 보고 오신(五神)은 이 정신활동작용 혹은 그 과정인 인지(認知), 사유(思惟), 의지(意志)과정을 오장(五臟)으로 나누어 묘사한 것으로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사유, 상상, 판단, 의지(感覺, 知覺, 注意, 記憶, 思惟, 想像, 判斷 意志) 등을 포괄한다는 견해도 있다¹²⁾.

내경에서 나타난 그 외의 쓰임새로는 혼(魂)의 경우 소문자법론(刺法論)에서 혼유어상(魂遊於上), 흡인신혼(吸入神魂)에서 정신의 일부분으로 양적(陽的)인 부분을 강조하여 쓰였고, 백(魄)은 소문에서 백한(魄汗), 백문(魄門)의 형태로 나타났다. 백한은 모두 장(藏) 혹은 진(盡)과 관계가 있었으며, 자한(自汗), 신한(身汗), 박한(薄汗)의 해석이 있으나 박한이라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¹³⁾.

백문(魄門)은 항문인데 왕빙은 항(肛)의 문(門)이라서 안으로 폐와 통하기 때문에 백문이라 하였다고 했고 단파원건(丹波元堅)은 조박(糟粕)이 나가는 문이란 뜻인 박문(粕門)이라고 했다. 백문을 귀문(鬼門), 현부(玄府)로 보아 피부의 모공을 가리킨다는 학자도 있다¹⁴⁾.

이와 같이 내경의 혼백의 용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내경 이전에 이미 혼백이 의미하고 있던 신(神)을 음양으로 나누어 보던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신활동을 오행으로 나누어 보는 기능적 관점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혼백과 수면

혼백이론은 한의학 신주(神主)이론과 뇌수(腦髓)이론의 조성부분으로 혼백은 뇌(腦)에서 생성되고 장(藏)에서 저장되었다가 밖으로 표현되는데 깨어있을 때는 혼이 눈으로 가 있으며 잠들면 간으로 돌아가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여 혼백이 서로 협조가 되면 잠을 잘잘 수 있다고 했는데¹⁵⁾, 이런 점은 혼백을 신(神)의 음양요소로만 파악하여 수면의 기리(機理)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를 심신(心神)은 인류가 홀로 구비한 최고 층차의 자각의식으로 신지활동(神智活動) 중에서 주재작용(主宰作用)을 발휘하여 혼백(魂魄)을 모두 거느리는데, 혼(魂)은 비교적 낮은 층차의 진화와 발육 과정 중에서 먼저 형성된 본체의식이지만 심신에 대해서는 기초 작용을 하며, 백(魄)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가장 기초적인 감지기능이며, 심신혼백(心神魂魄)의 이런 관계와 특성에 기초하여 볼 때

사람의 수면상태는 심신이 주도하는데 심신이 스스로 안으로 거두어지고 혼이 심신을 따라 안으로 가리앉으면서 백의 활성화는 잃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신(神)을 혼신의 백지(魂神意魄志) 오신(五神)의 다섯으로 나누어 오신의 상호작용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16,17}.

꿈은 전기의 운동형식으로 혼백이 신(神)을 따라 지속적으로 비양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¹⁸, 꿈의 발생 기전은 먼저 정사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뒤 그 자극이 심하지 않으면 잠이 깨지 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것이 꿈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그래서 혼백비양(魂魄飛揚)은 의식을 가진 상태의 정신활동이 아닌 특수한 정신활동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사이에 있는 전의식으로 혼백비양(魂魄飛揚)의 과정은 내외자극 요인의 작용 아래 무의식이 의식의 절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⁹.

4. 혼백(魂魄)의 생리학적 해석

포(包)²⁰는 정생우기(精生于氣), 신생우혈(神生于血)이라 하여 기(氣)가 족하면 정(精)이 족하고 혈(血)이 족하면 신(神)이 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精)은 폐장(閉藏)상태에 있을 때 폐(肺)에 저장되어 있다가 비(鼻)를 통해 신체 모든 부위로 운용되어 백(魄)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이것이 바로 병정이출입자 위지백(并精而出入者 謂之魄)의 의미로 인체가 각종의 사유활동(思惟活動)이나 구체운동(軀體運動) 시에는 정(精)이 신(神)으로 돌아가 신정(腎精)으로서 인체의 활동에 쓰여지므로 신자 각강지관 기교출언(腎者 作強之官 技巧出焉)이라 한 것으로 보았다. 인체가 수면상태에 처해 있을 때는 신(神)이 간장(肝臟)에 저장되어 혼(魂)이라 불리며 그래서 수신왕래자 위지혼(隨身往來者 謂之魂)이라 하였고 간혼(肝魂)은 각 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꿈이라고 보았다. 인체가 깨어 있을 때는 신(神)이 심(心)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심신(心神)이라고 했으며, 심신은 눈에서 운용되어 신체 각 부위에 운용되므로 심자 군주지관 신명출언(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했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정신동정(精神動靜)의 기능 변화를 개괄하여 정장즉위백(精藏則爲魄), 설즉위정 신각즉위신(泄則爲精 神覺則爲神), 매즉위백(昧則爲魄)이라 하여 정(精)과 백(魄)은 사실 하나로 갈무리된 상태인지 풀려난 상태 인지에 따라 나누어지고,

신(神)과 혼(魂)도 원래 하나로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폐와 신은 전적으로 기와 정을 생성시키고, 간과 심은 전적으로 혈과 신을 만든다고 보았다.

폐는 주기(主氣)하고 호흡을 맡아보며, 신은 납기(納氣)하고 장정을 주관한다. 한편으로 폐와 신은 일신의 기를 모두 관장하는데 기의 정수를 정(精)이라 하여 기가 왕성하면 정이 가득해진다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이 고요하면 폐에 저장되고, 움직이면 신으로 돌아가 정이 폐, 신 두 장을 통해 생기고 정의 동정 두 상태에서의 기능도 신정과 폐백 두 가지 형식으로 표출된다.

심(心)은 주혈(主血)하고 간(肝)은 장혈(藏血)하여 한편으로는 심, 간 두 장(臟)이 일신의 혈을 다스리고 혈의 정화가 신이므로 혈이 충족되면 신도 충실하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고요하면 간에 저장되고, 신이 움직이면 심으로 돌아가 신이 심, 간 두 장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신이 동정 두 상태에 있을 때의 기능도 심신(心神), 간혼(肝魂) 두 가지 형식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포의 견해는 심리학적인 면보다 생리학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²¹은 신(神)은 심(心)에서 발생하는데 간(肝) 부위에 있을 때는 신이 아직 왕성하지 않아서 양혼(陽魂)으로 나타나고, 정(精)은 신(神)에서 갈무리되는데 폐(肺) 부위에 있을 때는 아직 정(精)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 먼저 음백(陰魄)으로 맺힌다고 하여 왼 쪽에서 올라가는 양기가 반쯤 올랐을 때는 아직 신이 되지 못해 먼저 혼이 되었다가 완전히 오르면 신이 되며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음기는 반쯤 내려갔을 때 먼저 백이 되었다가 완전히 수렴되면 정(精)이 된다고 하고 혼(魂)은 신(神)의 초기(初起)이므로 수신이왕래(隨神而往來)하고 백(魄)은 정(精)의 기시(起始)이므로 병정이출입(并精而出入)한다고 하였다. 또 기는 폐가 거느리고, 혈은 간에서 갈무리되는데 간혈(肝血)이 온승(溫升)하면 양신(陽神)이 되고 폐기(肺氣)가 청강(淸降)하면 음정(陰精)이 된다고 하고 오장이 다 정(精)이 있지만 모두 신(腎)으로 가고, 오장이 다 신(神)이 있지만 모두 심(心)으로 가며, 오장에 다 혈(血)이 있지만 다 간(肝)으로 가고, 오장에 다 기(氣)가 있지만 폐(肺)로 가는데 모두 다 토기(土氣)로부터 변화 생성되는 것이라 하여 역시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5. 신흔백(神魂魄)

이²²⁾는 신흔백을 여러 가지 감수체의 총칭이라 보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아프고 가려운 것을 느끼는 것이나 차고 더운 감각, 평형감각, 자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자극에 반응하는 재채기, 기침, 구역질, 딸꾹질 등이 모두 신흔백의 반영이라 보았다. 신흔백은 몸으로 표현되며, 또 금방 태어났을 때의 손발의 움직임, 울음 등과 같은 각종의 본능적 동작과 성인의 무의식적 동작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신흔백의 기능을 감각, 반사 등의 생리 활동과 신생아의 본능적 동작과 성인의 무의식적 동작으로 귀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²³⁾는 신흔백을 따로 나누어 보았는데 백은 날 때부터 갖춘 본능성이며, 비교적 저급한 신경정신활동으로 신생아의 울음, 입 오물거림과 젖을 빠는 등의 비조건반사적인 동작 및 사지 운동 그리고 듣고 보고 차고 덥고 아프고 가려운 것을 느끼는 감지각(感知覺)과 기억 등으로 보았고, 혼은 본능적이 아닌 비교적 고급적인 정신활동으로 보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사유(思惟), 상상(想像), 평가(評價), 결단(決斷)과 감정(感情), 의지(意志) 등의 심리활동으로 보았다.

한편 유²⁴⁾는 표상(表象)과 실상(實象)으로 나누어 신흔백을 묘술하였는데, 혼의 작용은 표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도의 높낮이, 물체의 무게, 음성의 크기, 잠의 깊이, 평형을 지키는 능력, 냄새의 농도, 맛의 세기 등을 느끼는데 작용하며, 백의 작용은 실상적으로 청각, 시각, 감각, 후각, 배변, 수면, 평형 등이라고 하여, 곧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지각은 백이며, 그것을 잘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혼이라고 하였다.

왕⁹⁾은 역시 신흔백을 나누어 보고 백은 모든 본능적 동작으로 나면서부터 갖춘 것이며 유전적인 의미가 있으며, 혼은 생명 활동 과정 중의 약간의 본능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백은 인체의 본능적 동작과 감각 기능으로 인체 스스로가 가지는 고유의 각종 생리대사기능이지만 혼은 신 단계보다 낮은 정신활동으로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두³⁾는 장경악(張景岳)이 유경(類經) 중에서 정(精)과 신(神)을 말하자면 신은 양(陽)이 되고 정은 음(陰)이 되며, 백과 혼에 대해서 말하자면 혼은 양이 되고 백은 음이 되므로 혼은 신을 따라 다니고, 백은 정과 더불어 드나드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혼, 백을 지시대명사로 보았다. 정은 선천의 근본이며 백이 정과 함께 드나들기 때문에 인체의 선천본능 반응과 유관하고, 신은 선천과 후천이 서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정기의 운동 상태로 혼이 신을 따라 다니므로 사람의 의식 내용과 관계가 있어 사람의 심리와 생리 활동 과정에서 혼은 주로 의식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 제가들의 견해는 신을 높은 단계의 정신 활동인 혼과 낮은 단계의 생리활동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인간의 생명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신을 둘로 나누어 본 것이어서 여기서 말한 신흔백은 오신의 신흔백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신흔백과 심리학

심은 신지(神志)를 말아보며 신흔백을 통령하고 신흔백은神明(神明)의 표현형식이라 한 것²⁵⁾은 신흔백의 심리학적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신흔백(神魂魄)을 현대 심리학의 의식, 전의식, 의식과 대비하여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²⁶⁻²⁸⁾. 백(魄)은 초급 심리활동의 실현자로 보고, 혼(魂)은 정신의 관리자이자 구체적인 실시집행자로 보며, 신은 도덕, 정신, 의식, 추구 등 신지(神志)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며, 사람의 신지 활동을 통솔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백을 무의식과, 혼을 전의식과, 신을 의식과 대비하는데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7. 신흔백과 오신(五神)

정신 활동의 주체로서의 오신(五神)의 역할에 주목한 학자들은 적지 않다^{9,29,30)}.

윤⁷⁾은 정신의 기층부로서의 구조 역학적 생리학을 말하면서 기억을 설명하는데 오신을 원용하는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하였다.

기억은 우리 정신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그는 기억을 되살리고, 필요 없는 기억의 회생을 억제하고, 정신활동을 추진시키고 회생된 기억을 쓸모 있게 통일화하여 이를 요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통일화된 기억과 각처에서 오는 기억재를 침정, 정화 보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억을 회생시키는 발생기능의 활동과, 불필요한 기억의 회생을 억제하는 억제 기능 활동과, 기억들을 통합하여 자기화하는 통합기능 활동

과 의식화한 것이나 새로 오는 기억재를 침정, 정화하여 잔존시키는 침정기능 활동과 정신활동을 추진하는 추진기능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정신면에 있어 발생기능을 혼(魂)이라 하고, 추진기능 활동을 신(神)이라 하고, 통합기능 활동을 의(意)라 하고, 억제기능 활동을 백(魄)이라 하고, 침정기능 활동을 지(志)라 하니 이를 각각 충동관능(衝動官能), 신명관능(神明官能), 인격관능(人格官能), 검열관능(檢閱官能), 작강관능(作強官能)으로 표현하였다.

혼은 침정(沈靜)한 정신상태를 의식적 정신상태로 발동시키는 정신활동이며 정신의 충동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신을 생물의 활동 현상 중 가장神明(神明)한 정신 발현의 힘을 말한 것이며, 생명이 존속해야 정신이 발현하는 것이니 생명활동의 추진기능이라 하고 의를 충동을 받아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자아적으로 통합하고, 인격적으로 통일 발현함으로써 자기 의식화하는 정신활동이라 하며, 백을 무질서하게 일어나면 생명존속에 불리하여 위험한 욕망적 충동을 적당히 억제하는 정신활동으로 정신활동의 억압 경향성을 말한다 하고, 지를 의식을 정화하여 무의식화시켜 저장하는 작용을 하는 정신활동의 관념화 경향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프로이트 학설의 오행(五行)적 해석이라 할 만하다. 이런 해석이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오행의 한 속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 정신활동 과정 즉 감각, 지각, 꿈, 사고, 신념, 감정 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운과 같이 기억의 과정을 오신(五神)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이를 정신활동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고 본다. 정신활동은 대체로 감각, 지각, 꿈, 사고, 신념, 감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의학에서는 정신활동을 오장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오신(五神) 혹은 오지로 표현하고 있다.

또 성¹²⁾은 오신(五神)으로 경(驚), 희로(喜怒), 애락(哀樂), 애오(愛惡), 욕(慾)으로 유가칠정의 충차를 설명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정신활동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은 아니다.

이제 오신을 인간의 정신활동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각(感覺), 지각(知覺), 주의(注意), 기억(記憶), 사유(思惟), 상상(想像), 판단(判斷), 의지(意志)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오신에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그 일부분으로서 혼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먼저 백은 대개의 의기들이 날 때부터 가진 본능적 행동 및 감각과 지각이라고 보고 있다. 진화론 적인 과정에서 볼 때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 까지 진화해 오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일 것이다. 생명체에 가해지는 위험을 느끼는 것은 오감이지만 다른 기관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촉각이다. 이런 촉각은 피부를 통해서 느끼게 되므로 폐주피모(肺主皮毛)나 폐장백(肺藏魄)의 관점에서 볼 때 백(魄)을 본능적 행동 및 감각 지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병정이출자위자백(並精而出入者謂之魄)이라 한 것이다.

혼(魂)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정신 활동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의의는 없었다. 내경에 수신왕래자 위지혼(隨神往來者謂之魂)이라 한 것을 보고 신보다 좀 더 낮은 층차의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정의이지만 정신활동의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로는 부족하다. 신(神)은 감정을 주관한다. 여기서의 신은 오신을 아우르는 정신활동이 아니라 오신(五神) 중의 하나로서의 신이다. 인간의 성장과정을 생각할 때 날 때부터 감각과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감지각(感知覺)은 하나하나 쌓여 기억으로 저장된다. 내경에서 심유소억(心有所憶)을 위지의(謂之意)라 하였는데 감지각(感知覺)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심(心)에 쌓여 기억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의인 것이다.

기억은 감정을 생산한다. 개체에게 해로운 일, 개체의 안녕을 위협했던 사건이나 사물들은 싫어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 사람으로 개체가 득을 보았다면 같은 사람, 사건, 사물을 마주쳤을 때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활동의 그 다음 단계는 심의 단계로 이를 심유소종 위지정(心有所從謂之情)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과 감정이 자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집적하게 되면 개체에 어떤 경향성이 생기게 된다. 이는 개인에게는 성격이 되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 즉 인성이 되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특질 및 특징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개체 간의 독특한 행동 양식인 것이다. 이것이 어떤 민족의 특징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를 민족혼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정신활동에서 인격의 단계는 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혼을 한의학에서는 간(肝)과 연관 짓고 있다.

이렇게 혼이 갖추어진 개체는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짓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지는 명확 목표를 가진 지향성 심리과정으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기와 의지이다. 한의학에서 이 지는 신장에 배속시키고 있어 신(神)의 정기가 강한지 약한지, 가득한지 비었는지가 꾸준히 지속하는 힘, 강인성 및 의지가 굳은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오신(五神)이라는 정신활동과정에서 백(魄)은 감각과 지각으로, 의(意)는 기억으로, 신(神)은 감정으로, 혼(魂)은 인격으로, 지(志)는 신념, 의지로 비정될 수 있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각, 지각, 꿈, 사고, 신념, 감정 등의 과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신(神)은 협의의 신(神)으로, 이 모든 정신활동을 통솔하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를 광의의 신(神)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혼신의백지(魂神意魄志)이 다섯 정신활동을 충동(衝動), 신명(神明), 인격(人格), 검열(檢閱), 작강(作強)으로 보는 관점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한의심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신활동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포괄적이며 현대 심리학에 상응하는 해석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되며 이런 해석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V. 결론

1. 은상시기에는 혼백(魂魄)이 신(神)과 같은 의미로 쓰이다가 진한시기 이전에 이미 양신(陽神)인 혼과 음정(陰情)인 백으로 나뉘어 신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 인식되었다.

2. 내경에서는 혼백이 양신(陽神)과 음정(陰情)뿐만이 아니라 오신(五神)의 두 부분으로 인식되어 생리와 심리를 설명하고 있다.

3. 오신(五神)은 기억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4. 오신(五神)은 유가 철정의 충치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였다.

5. 전체적인 정신활동을 설명하는데 오신(五神)은 매우 유용하다.

REFERENCES

1. Myers DG. Psychology. Tenth Edition. Worth Publishers. 2013:6.
2. Gerrig R.J.. Psychology and Life 20th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2013;2.
3. Yin HH. The Lecture Manuscript of Basic Theory Of TCM.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8:8. (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印会河中医学基础讲稿)
4. Zhu WF. The Original Meaning of Psychology in TCM. Huna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7:1-2.(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医心理学原旨)
5. Du WD. Psychology in TCM. The Medicine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of China. 2005:22-3.(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醫心理學)
6. Wang MQ. Modern Psychology in TCM.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7:5.(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现代中医心理学)
7. Yun GY. The Methodological Study in Oriental Medicine. Seongbosa. 1983:34.
8. Yang LY. The study on the Viewpoint of Traditional Chinese Psychiatry before Qin and Han dynasty. Master Thesis, Heilungjang TCM University. 2008:5-9.(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秦漢以前的精神醫學觀念研究)
9. Li X. The Analysis of Five Shen and the Unity of Body and Shen, Master Thesis, Tenjin TCM University. 2000:4-17. (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五神”及“刑神合一”解析)
10. Liao YQ. The Medical Way of Qihuang. Liaoning Education Press. 1991:71-2.(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岐黃醫道)
11.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al schools in nation, The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ine. Revised edition. Jipmoondang. 2010:27-34.
12. Seong WY. A Study of Chiljeong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3;24(4):451-68.
13. Huang ST, Yang CH. A Study on Po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TCM. 2015;39(2):152-3.(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浅析《黄帝内经》所述之“魄”)
14. Lin DW. A Clinical Understanding of Anus also Work for Five Visceral. Journal of Sichua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28(8):44-5.(浅谈临床对“魄门亦为五脏使”的理解)
15. Liu YJ, Gao RL. TCM in Sleep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3:64.(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醫睡眠醫學)
16. LU Y. The Research on the Sleeping Mechanism and Theory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Doctorial Thesis.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6.(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内经》睡眠机理及其系统理论的研究)
17. Qi XH. The theoretical and Clinical Study on the State of Zhou Bu Jing and Ye BU Ming in Patients with Insomnia. Doctorial Thesis. Shandong TCM University. 2004.(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失眠症患者“昼不精，夜不瞑”状态的相关理论及临床研究)

18. You XL. The Practical Meaning of Diagnosis by Dream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4;12(8):19-21.(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内经》梦诊的现实意义)
19. Li LS. A Study on Dream Theory in TCM and the Unconscious. Jiangsu Journal in TCM. 2009;21(1):13.(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医梦学理论与西方潜意识初探)
20. Di RH. Jingshen-Hunpo described by Famous Doctor Bao Shi-sheng.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4;12(8):1-2.(民国名医包识生论精神魂魄)
21. Huang YY. The Theory inherited from Four Greats. TCM&H Publishing Company. 1999:790-2.(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四圣心源)
22. Li WX. A Discussion for The Brain and Zhiyi. New Journal of TCM. 1983;4:3-7.(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论脑髓与志意)
23. He YM. Chinese Traditional Psychopathology. Shanghai Science Spreading Press. 1995:31-5.(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國傳統精神病理學)
24. Liu YJ. the Brain and Hunpo. Journal of Literature in TCM. 1996;4:24-6.(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腦與魂魄)
25. Kong LB, Jiang Q, LI Y. A Discussion on Shen Theory in TCM. Beij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2(10):769-70.(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医学“神”理论探讨)
26. Chen MY. The Psychological Aspect about Shen, Hun and Po in TCM. Chinese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26(9):953-5.(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中醫心理結構-神魂魄)
27. Yang ZN, Su J.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bout Hun and Po.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19(9):982-4.(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关于魂与魄的心理理解)
28. Shao L. A Theoretical Research on Becoming Anger. Doctorial Thesis,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8.(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内经》怒志生成理论的研究)
29. Pan DW. Content and Context of Spirit in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Doctorial Thesis, GuangZhou University. 2008.(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内经》形神理论的多重结构)
30. Du J, Wang H. A Study on the Contents of Ximzhushenming.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20(1):11-3.(the title was translated from “心主神明”内涵探析——“总统魂魄,兼赅意志”)